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사44:1-8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요1:14 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다 하십니다. 사단의 머리도 깨고 사단 때문에 일어난 원죄도 해결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사단과 원죄의 저주에서 해방 됩니다.

오히려 사단을 정복하고 원죄를 정복합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완전히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누리는 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살립니다. 말씀을 따라 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1.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1)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상 숭배가 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를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 -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성경처럼 살게 됩니다. 성경은 전부 말씀을 따라 간 사람들입니다.
2) 그리고 들어야 될 내용을 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들이 4절 처럼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가슴에 담고 언약이 되게 하고 각인되어 성경처럼 되라는 말씀입니다.
3) 그리고 6절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인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시작하였고 내가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 나 외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은 전부 귀신이니라. 전부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4) 7절 내가 영원한 백성 곧 너희를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린 자가 있느냐. 누가 내게 무엇을 설명할 신이 있느냐. 있거든 누구든지 앞으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말해 봐라. 나는 내 백성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외치고 알리고 그리고 그대로 이룬 자가 아니냐. 누가 이렇게 할 신이 있느냐. 있으면 지금 해 봐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5) 8절 너희는 두려워 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 말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니라. 그러면 네가 염려할 일은 없을 것이다. 세상의 무엇이 내 말을 이기겠느냐.
6)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반석, 누가 나를 흔들 수 있으면 와서 해 봐라. 앞으로 될 일을 아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와서 말해 봐라. 누가 내게 무엇을 설명할 자가 있느냐, 있으면 와서 해 봐라.
7)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타난 자는 없습니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을 통

하여 하나님은 이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한 가지만 마음에 담고 가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으로 살겠다.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담고 살겠다. 이것이면 될 것입니다.

8) 말씀이 마음에 각인이 되면 언약이 되고 무기가 되고 답이 됩니다. 사단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고 (마4:1-11) 평생 마음에 언약이 되므로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고 치유도 되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인생의 모든 것을 정복한 상태가 됩니다

9) 기도의 중심이 될 것이고 기도할 힘을 가지게 될 것이며 24시간 하나님과 소통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소통된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이고 우리는 세상과 인간을 초월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엇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0)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평생의 언약이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간단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11) 홍해는 마른 땅으로 건넜고 쫓아오든 적군은 그 물에 잠겨 다 죽었습니다.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 왔고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먹을 것을 위하여 노력한 적이 없으며 먹을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때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나안을 갈 사람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12)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민족도 이 말씀을 이길 수 없었고 어떤 문제도 환경도 이 말씀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런 저런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이 말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무리 사단 편에 서 있어도 말씀은 하신 그대로 그 시간표에 성취되었습니다.

13)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에 들어가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유월절에서 유월절로 끝을 내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 절기 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표를 계산하여 그 날짜에 맞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표의 내용이 어린 양의 피였다는 메시지입니다.

14)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내가 말하노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우리는 다 이래야 할 것입니다. 이 각인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원죄로 인하여 들어온 모든 문제를 이 언약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15) 이제 각인만 되면 됩니다. 계속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각인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상관 없이 초월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16)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성경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